

중국의 6·25전쟁에 대한 연구 성과와 동향

吳圭烈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1. 서론
2. 중국의 6·25전쟁 연구 역사
3. 최근 중국의 6·25전쟁 관련 자료집 및 저작물
4. 최근 중국의 6·25전쟁 관련 주제별 연구 성과
5. 결론

1. 서론

소련의 해체는 6·25전쟁 연구에 크게 두 가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첫째,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오던 냉전이 종식됨으로써 학자들에게 냉전적 시각에서 벗어나 6·25전쟁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두 번째, 러시아 대통령 문서보관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6·25전쟁 관련 구소

런 기밀문서들이 대량으로 공개되면서 그동안 일방의 자료에 의존하여 6·25 전쟁을 연구하던 것을 여러 나라의 문서들을 상호 교차하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중국의 6·25전쟁에 관한 연구도 이러한 변화에 자유로울 수 없었다. 중국정부는 1980년대 말부터 6·25전쟁에 관련된 공문서 일명 당안(檔案)을 공개하기 시작하였고, 중국내 6·25전쟁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풍부한 자료의 출현과 냉전의 종식이 맞물리면서 체제 경쟁적 연구 성과가 대중을 이루던 중국의 6·25전쟁 연구학계는 역사의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는 쪽으로 변화되어 최근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중국학자들이 이룩한 6·25전쟁에 관한 연구 성과는 구소련의 기밀문서와 중국의 공문서를 1차 자료로 삼아 과거에 비해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국에서의 6·25전쟁 연구는 전반적으로 냉전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중국의 6·25전쟁 연구가 냉전의 그늘을 극복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직 민주화되지 못한 중국의 정치적 현실과 중국과 북한의 관계 때문이며 나아가 6·25전쟁 발발에 대한 중국의 책임문제에 있다.

6·25전쟁은 동북아의 모든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역사적 사건이었다. 6·25전쟁이 낳은 동북아 역내 모순구조의 핵심인 한반도의 분단과 긴장을 발전적으로 해소시켜 나가고 이 지역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 전쟁에 대해 서로가 상호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이해와 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상호 인식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쟁점을 조정해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는 그 동안의 냉전적 시각에서 벗어나 이 전쟁에 대해 보다 균형 있고 미래지향적인 규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¹⁾ 이런 맥락에

1) 앞으로 중국의 자료들이 전면적으로 공개되고 나아가 북한의 자료들이 햇빛을 보게 되면, 6·25전쟁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붐을 이루게 될 것이며, 그때는 이 전쟁의 진상과 의미에 대해 보다 더 정확하게 접근하게 될 것이다.

서 최근 중국학자들이 이룩한 6·25전쟁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점검하는 일은 그들의 관심과 시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객관적 역사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상호 관점을 조정해 가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목적에서 중국의 6·25전쟁에 관한 연구 상황을 고찰하고 최근 중국의 6·25전쟁에 대한 연구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현존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가올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2. 중국의 6·25전쟁 연구 역사

중국의 6·25전쟁에 관한 연구는 중국 현대 정치의 흐름에 따라 이에 강한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 왔는데, 이를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제1단계

제1단계는 1953년 6·25전쟁이 종결된 때부터 1966년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지 전까지이다. 사실 이 시기는 엄격한 의미에서 6·25전쟁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시기 연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소위 중국 ‘인민지원군(人民志願軍)’의 ‘항미원조(抗美援朝)’전쟁에 관한 연구가 인민해방군 군사(軍史)연구의 일부분으로서 이루어졌으며 그 임무도 당과 국가의 정치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

1953년 10월 초 지원군 총사령부는 6·25전쟁에 참여했던 각 부대에 한국에서의 작전 경험을 결산하여 사단과 군단급에서 종합하라고 지시하였다. 동시에 총참모부는 지원군 총사령부에 훈령을 보내 한국전에 참전하고 귀

국한 각 군과 총사령부의 작전 경험을 종합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954년 8월 ‘중국민지원군 항미원조전쟁경험총결산편찬위원회(中國人民志源軍抗美援朝戰爭經驗總結編纂委員會)’가 설치되어 6·25전쟁의 경험을 종합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 기구는 수십 권의 『抗美援朝戰爭經驗結編(한국전쟁 경험결산)』을 내부 자료로 간행하였다. 이 밖에 이시기 대표적 저작은 1953년의 『英雄的中國人民志源軍(영웅적인 중국인민지원군)』과 1956년의 『志源軍英雄傳(지원군 영웅전)』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지원군의 애국정신과 용감성을 찬양하는 문학 작품들이다 예를 들어 웨이웨이(魏巍)의 『誰是最可愛的人(누가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인가)』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특징은 첫째, 정치선전 교육의 색채가 강하고 학술적으로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연구 과정에 정치적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57년 반우파(反右派)투쟁과 1959년 루산(廬山)회의로 평더화이(彭德懷)와 황극청(黃克誠)이 정치적으로 몰락하자 6·25전쟁에 관한 연구는 중지되었다.

(2) 제2단계

제2단계는 1966년부터 1976년까지인 문화대혁명기이다. 이 시기는 중국의 사상, 문화, 전통이 모두 교조화 되고 경색된 기간으로 6·25전쟁에 관한 연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따라서 정치투쟁과 노선투쟁이 군사연구를 대치하였고 학술연구는 비판받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학문적 성과는 전무하였다.

(3) 제3단계

제3단계는 1976년 문화혁명이 종식되고 1990년 냉전종결 초기까지이다.

이 시기는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 전회를 거치면서 사상의 속박에서 벗어난 시기로 학술연구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따라서 6·25전쟁에 관한 연구도 외연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도 깊은 성과물들이 양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시기는 6·25전쟁 관련 중국측 문서들이 『建國以來毛澤東文稿(건국이후 마오쩌둥 문고)』를 통해 공개되면서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 시기 또 다른 특징은 한국전에 참전한 고위장성들의 회고록이 대량으로 출판되었다는 점이다.

지원군의 전직 지휘관들의 회고록은 대량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개인적인 관찰과 직접적인 경험들을 제공했다. 그 중 지원군 총사령관이었던 평더화의 사후에 비로소 발간된 회고록 『彭德懷自述』이 가장 대표성을 갖는다. 이 회고록은 당시 격렬했던 내부의 전술논쟁과 마오쩌둥의 주재자 역할을 등을 포함한 많은 놀라운 내막들을 공개했다.²⁾ 그 후 마오쩌둥을 제외한 한국전에 참여했던 거의 모든 주요 인물들이 회고록을 출판했는데, 그 중 중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聶榮臻, 『聶榮臻回憶錄』 제22장, 제23장(1984년)

전 해방군 총참모장을 역임한 필자는 이 책에서 1950년 초에 해방군 중다수의 한인출신 군인들을 북한으로 인도했으며, 당시 중국이 보유한 가장 양호한 무기들을 북한군에 교부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³⁾

2) 徐向前, 『歷史的回顧』(1987년)

그는 이 회고록에서 6·25전쟁기에 중국과 구소련 지도자 사이에 심각한 의견차이가 있었음을 밝혔다. 그에 의하면 스탈린은 중국군 건설에 그리 흔쾌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⁴⁾

2) 彭德懷, 『彭德懷自述』(北京:人民出版社, 1981).

3) 聶榮臻, 『聶榮臻回憶錄』(北京:解放軍出版社, 1984).

3) 伍修權, 『在外交部八年的經驗』(1986년)

그는 1950년대 초 외교관으로서 중국정부를 대표하여 유엔에 참석했던 일과 외교부 부부장 시절 한국문제의 토론에 참여했던 일 등을 술회하고 있다.⁵⁾

4) 楊得志, 『爲了和平』(1987년)

전 인민지원군 부총사령관 겸 제19집단군 사령관을 역임한 저자는 그가 직접 지휘했던 지원군 제19집단군이 참여한 전투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회고하고 있다.⁶⁾

5) 楊城武, 『新的使命』(1989년)

제20집단군이 참여한 전투에 관한 회고이나 책의 절반가량이 참전부분에 할애되었다.⁷⁾

6) 杜平, 『在志願軍總部』(1989년)

지원군 정치부 주임이었던 그는 지원군의 정치동원 및 군비 해제에 관한 활동을 상세히 묘사했다.⁸⁾

7) 洪學智, 『抗美援朝戰爭回憶』(1990년)

병참을 맡았던 지원군 부총사령관 홍학지는 그의 회고록에서 지원군 총

4) 徐向前, 『歷史的回顧』(北京: 解放軍出版社, 1987).

5) 伍修權, 『在外交部八年的經驗』(北京: 新世界出版社, 1986).

6) 楊得志, 『爲了和平』(北京: 長征出版社, 1987).

7) 楊城武, 『新的使命』(卓越出版社, 1987).

8) 杜平, 『在志願軍總部』(北京: 解放軍出版社, 1989).

부의 일상생활과 작전의 결정과정을 묘사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참전 결정과정에서의 임포의 역할, 북한 간부의 빈번한 중국방문과 이에 대한 중국측의 대응 등이다.⁹⁾

8) 柴成文, 趙勇田, 『板門店談判』(1989년)

6·25전쟁의 전 과정에 참여했던 시성문과 조용전은 회고록에 판문점회담의 직접 경험을 기재했다. 그 중 柴成文은 6·25전쟁 발발 직후 평양에 파견되었던 중국정부 최초의 정식 대표였다.¹⁰⁾

9) 薄一波, 『若干重大決策與事件的回顧』(1991년)

그는 이 책에서 중공의 일부 기밀문건을 선택하여 그의 관점을 뒷받침했는데, 이들 문건들은 당시 그와 소수의 지도자만이 볼 기회가 있었던 것들이다.¹¹⁾

(4) 제4단계

제4단계는 1991년 소련이 해체되어 냉전이 종식된 후부터 현재까지로 6·25전쟁 연구에 부흥을 맞이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연구자들이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이전까지의 단계에서는 주로 군계통과 중국공산당 중앙당사문헌연구부(中央黨史文獻研究部)의 연구원들이 주로 연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자료 이용의 편리함을 장점으로 하

9) 洪學智, 『抗美援朝戰爭回憶』(北京:解放軍文藝出版社, 1990).

10) 柴成文, 趙勇田, 『板門店談判』(北京:解放軍出版社, 1989).

11) 薄一波, 『若干重大決策與事件的回顧』(北京: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1).

였으나 주로 정치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순수연구자와 대학교수들의 참여가 활발해졌다. 예를 들면 선즈화(沈志華)와 양쿠이송(楊奎松) 그리고 뉴권(牛軍)교수를 들 수 있다. 또 린리민(林利民)과 쉬저룽(徐澤榮), 진징이(金景一)의 활약도 두드러진다.

둘째, 특징은 연구의 내용이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이전에 6·25전쟁에 국한되었던 연구 주제가 한국 전쟁과 중·소 관계, 6·25전쟁과 중·미 관계 등으로 연구의 지평이 확대되었다.

셋째, 특징은 연구에 인용되는 자료가 풍부해졌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수 많은 기밀문서가 해체되었고 동시에 중국도 공식 문서를 발표하면서 6·25 전쟁 관련 1차 자료가 풍부해졌다. 따라서 학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6·25 전쟁을 다시 조망하게 되었다.

이상의 변화는 학계에 활력이 되었고 깊이 있는 연구 성과가 많이 생산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3. 최근 중국의 6·25전쟁 관련 자료집 및 저작물

6·25전쟁과 관련된 중국의 공식문서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특유의 방식으로 공개되고 있다. 중국 특유의 방식이란 중국정부에 속한 관방 연구소에서 출판된 저작물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도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당시 문서만을 종합하여 공개하는 자료집 형태가 있으며, 다른 하나는 연구 성과물에 인용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1) 자료 집

중국이 6·25전쟁 관련 문서를 자료집 형태로 공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많은 양을 공개한 자료집은 1987년부터 1990년 사이에 中共中央文獻資料室(중국공산당 중앙문헌연구실)이 편찬한,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建國以來毛澤東文稿(건국이후 마오쩌둥 문고)』(北京:中央文獻出版社)를 들 수 있다. 이 저작물은 총 1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4권에 6·25전쟁 관련 전문(電文)이 235편 수록되어 있다. 다음은 중공중앙문헌연구실과 군사과학원이 공동으로 편찬, 中共中央文獻研究室, 軍事科學院編, 『毛澤東軍事文集-第6卷』(北京:中央文獻出版社, 1993년)이다. 이 책은 한국전쟁 관련 전문 116편을 수록하였는데 이 가운데 113편은 『建國以來毛澤東文稿』에 수록된 전문과 중복되는 것이고 3편만이 최초로 공개되었다. 그런데 1999년 개정된 『毛澤東軍事文集-第6卷』(北京:中央文獻出版社, 1999년)은 다시 처음 공개되는 4편을 추가하여 출판하였다. 이 책에서 처음 공개된 4편의 전문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첫째, 「朝鮮戰局和我們的方針(한국전의 전황과 중국의 방침)-1950年 9月 5日 毛澤東在中央人民政府委員會第9次會議上的講話(1950년 9월 5일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9차 회의 석상에서 마오쩌둥이 행한 연설)」과 둘째, 「1953年 2月 7日 毛澤東在全國政協一屆四次會議閉幕會上的講話(1953년 2월 7일 전국정치협상회의 제1기 제4차 회의 폐막식에서 마오쩌둥이 행한 연설)」, 셋째, 「同一切愿意和平的國家團結合作-1954年 7月 7日 毛澤東在中共中央政治局擴大會議上的講話(1954년 7월 7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확대회의에서 마오쩌둥이 행한 ‘평화를 희망하는 모든 국가들과 단결하고 협력하자’는 제목의 연설)」, 넷째, 「1954年 10月 18日 毛澤東在國防委員會第一次會議上的講話(1954년 10월 18일 마오쩌둥이 국방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행한 연설)」이다.

『建國以來毛澤東文稿』출간 이후, 비교적 체계적으로 비밀문건을 공개한

중국 당국은 中共中央文獻研究室, 軍事科學院 編, 『周恩來軍事文選—第4卷』(北京:人民出版社, 1997年)에서 다시 74편의 6·25전쟁 관련 기밀문서를 공개하였다. 『周恩來軍事文選—第4卷』에 수록된 74편의 문건 가운데 6편은 기 공개된 것이었고 68편이 처음 공개되었다.

2000년 중국은 6·25전쟁 참전 50주년을 맞아 참전결정과정과 휴전회담에 관련된 귀중한 문서 9편을 다시 공개하였다. 당 기관 잡지 『黨的文獻』 2000年 第5期는 9편을 포함 21편의 문서를 등재하면서 여기에 최초로 공개하는 전문 7편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공식적 문서자료집 외에 연구저작물을 통해 공개된 자료도 있다. 중국이 참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1950년 10월 2일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이 존재하느냐를 두고 그 동안 6·25전쟁을 연구하는 학계에서는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逢先知, 李捷 著, 『毛澤東與抗美援朝(마오쩌둥과 한국전쟁)』(北京:中央文獻出版社, 2000年)에 그와 관련된 2편의 전문이 수록되었다.

(2) 중국학자 6·25전쟁 관련 저작

중국이 6·25전쟁 관련 문서를 공개하면서 중국에서 6·25전쟁에 관한 새로운 연구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곳에서는 1990년대 이후 중국의 6·25전쟁에 대한 새로운 연구 성과를 관방연구자와 민간연구자들의 대표적 저작으로 나누어 분석해 봄으로써 중국의 6·25전쟁에 대한 연구동향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관방 연구 저작물

먼저 이제까지 중국의 6·25전쟁 연구를 주도해 왔던 관방연구자들의 최근 6·25전쟁에 관한 연구 저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로 중국군의 연구기관은 6·25전쟁에 관한 연구에서 여전히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 군사과학원이 대표적이다. 군사과학원은 산하에 여러 기구를 두고 있는데 전사(戰史)에 대한 연구는 군사역사연구부(軍事歷史研究部)가 담당하며 약 100여 명의 연구진이 연구에 종사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군사역사연구부에 한국전쟁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치더쉐(齊德學)와 취아이궈(曲愛國) 등이 외부에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는 학자로 활발한 성과물을 발표하고 있다. 군사과학원은 단행본 외에도 정기간행물인 『軍事歷史』를 발간하여 6·25전쟁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다. 그들이 편찬한 주요 저서로는 중국의 6·25전쟁에 관한 최초의 공간서(公刊書)인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著,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史』(北京:軍事科學出版社, 1987年)와 한국전 참전 50주년 기념으로 2000년 위의 공간서를 대폭 수정 증보한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著, 『抗美援朝戰爭史(3卷本)』(北京:軍事科學出版社, 2000年)¹²⁾가 있다. 『抗美援朝戰爭史(3卷本)』는 6·25전쟁에 대한 최근 중국의 공식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 ①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著, 『抗美援朝戰爭史(3卷本)』(北京:軍事科學出版社, 2000年)

이 책은 중국의 참전결정과정, 조·중 연합사령부의 구성과 운영, 중국군 각 참전부대의 역대 전역(戰役)¹³⁾의 구체적 전황, 전투근무지원과 공군의 업호 상황, 정전협상전략, 중국군의 전술운동 등 6·25전쟁에 관련된 문제

12) 2000년 9월에 출판된 이 책은 중앙군사위원회가 임무를 부여하여 9명의 연구자가 집필하고 치더쉐가 편집한 것으로, 기존 연구서들이 1950년 6월에서 1953년 7월의 기간만 다룬 것과 달리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의 정세부터 시작하여 1958년 10월 지원군이 철군할 때까지를 망라하고 있다. 다시 말해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史』의 한계를 상당부분 보완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 책의 1권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2002년 『중국군의 한국전쟁사Ⅱ』로 번역 출간되었다.

13) 중국은 일정한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통일된 작전계획에 의거 일정한 방향과 시간 내에 행하는 전투를 전역이라고 부른다. 대개 군사령부급 이상의 작전이 이에 해당된다.

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어 6·25전쟁에 있어 중국의 역할과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은 기존 중국관방의 6·25전쟁 관련 출판물과 달리 중국측 공문서와 미국에서 기밀해제 된 문건들을 바탕으로 서방의 연구저작물을 대폭 활용하여 쓰여졌음은 물론 러시아에서 공개한 구소련 기밀문서까지 활용하여 기술하였다.

이 책은 그동안 학계에서 쟁점이 되어온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중국 관방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첫째, 6·25전쟁의 발발이 중국의 ‘대만해방’과 대만에 대한 군사점령을 연기하게 했는가?에 대해 “한국전쟁의 발발은 미국이 ‘예정된 원동침략확장계획’을 전면적 실행의 서막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전쟁과 관계없이 대만을 단순히 중국에 내어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간 일부 학자들이 “중국이 항미원조전쟁을 진행했기 때문에 대만 통일의 목표를 무기한 연기했다”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즉, 미국이 제7함대를 대만에 파견하여 중국군대가 가시적인 시간 내에 대만을 해방하는 것을 방해했고, 미국이 먼저 중국에 비우호적인 행동을 취한 후에 중국은 비로소 참전을 결정했다는 것이다.¹⁴⁾ 둘째, 중국의 파병 결정은 올바른 것이었는가라는 문제와 스탈린의 압력에 따른 결과였는가?라는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먼저 여덟 쪽을 할애해 중국 정권이 갖 성립된 당시의 정세와 임무를 서술한 후, 중국은 조선에서 미국과 전쟁을 할 생각이 없었지만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장기간 외세의 침략과 위협을 받은 국가의 독립에 대한 갈망을 헤아리지 못하고 강권을 동원하였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부득이하게 반침략의 기치를 들고 막대한 민족적 희생을 무릅쓰고 전쟁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책은 기존 중국에서 출판된 6·25전쟁 관련 저작 이상의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각 권별로 이 저작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

14)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著, 『抗美援朝戰爭史(第1卷)』(北京:軍事科學出版社, 2000年), 29-35쪽 참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Ⅰ』(서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년), 43-52쪽 참조.

1권은 첫 번째, 김일성이 중국에 출병을 요청한 상황과 스탈린이 중국에 출병을 요구한 전 과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특히 1950년 10월 1일 김일성과 박헌영이 마오쩌둥에게 지원을 요청한 편지¹⁵⁾를 처음 공개하였다. 두 번째, 두 개의 장을 할애하여 동북변방군(東北邊防軍)의 설치가 결정되는 과정부터 설치되어 참전 준비를 하는 상황까지 기술하고 있다.¹⁶⁾ 이에 대한 기술은 매우 자세하여 이 시기의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2권은 제1차 전역에서 제5차 전역까지의 전 과정을 전투사 중심으로 담고 있다. 특히 마오쩌둥과 평더화이의 전쟁지도와 전술지휘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 점은 최초로 상세하게 ‘중국인민지원군’과 ‘조선인민군’의 연합사령부를 조직하게 된 상황과 과정이 발표되었다.¹⁷⁾ 둘째, 제3차 전역 후, 과도기적 승리를 맞이한 상황에서 실사구시(實事求是)적으로 전쟁지도(戰爭指導)를 하는 상황이 잘 기술되어 있다.¹⁸⁾

제3권에는 정전협상이 시작된 후, 한편으로 전투를 벌이면서 한편으로 협상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기존의 전사들이 이 시기 전투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술하였으나 협상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기록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는 이데올로기의 영향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은 두 부분은 물론 협상진행의 전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제3권은 주목해야 할 네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제6차 전역의 구상과 취소에 관한 내용, 둘째, 포로문제와 포로협상과정, 셋째, 지원군의 작전교대에 관한 정

15)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著, 『抗美援朝戰爭史(第1卷)』(北京:軍事科學出版社, 2000年), 148-149쪽.

16)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著, 『抗美援朝戰爭史(第1卷)』(北京:軍事科學出版社, 2000年), 58-76, 90-113쪽 참조.

17)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著, 『抗美援朝戰爭史(第1卷)』(北京:軍事科學出版社, 2000年), 166-169쪽 참조.

18)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著, 『抗美援朝戰爭史(第2卷)』(北京:軍事科學出版社, 2000年), 194-195쪽 참조.

황, 넷째, 유엔에서의 외교적 투쟁과 1953년 정전협상 타결을 둘러싼 중국과 소련 그리고 북한의 모순과 갈등의 조정 과정 등이다.¹⁹⁾

이 저작은 풍부한 1차 사료를 바탕으로 비교적 자세하고 분명한 중국의 입장을 담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중국의 참전과 관련하여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인 1950년 10월 2일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발송하려고 준비하였으나, 발송하지 않은 전문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 아쉬움이 든다. 아울러 미국 자료의 경우 자세한 주석을 명기한 반면 러시아 자료의 인용에 대해서는 주석을 부실하게 처리하였다.

② 齊德學 著, 『巨人的較量(거인의 대결)』(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9年)

중국 관방의 대표적 6·25전쟁 연구자 치더쉐는 공간서, 『抗美援朝戰爭史(3卷本)』와는 별도로 개인 명의로 『巨人的較量』을 발표하였다. 그는 주로 6·25전쟁에 대한 중국 최고지도부의 정책결정과 전쟁지도에 관한 부분을 연구해 왔다. 『巨人的較量』은 중국에서 기밀 해제된 자료와 러시아에서 공개한 구소련 기밀문서를 교차 비교하는 방법으로 6·25전쟁에 관한 중·소의 최고위 정책결정자간의 정책결정 과정을 내밀하게 추적하고 있다. 이 책은 6·25전쟁 관련 중국과 소련의 1차 자료를 오랫동안 천착한 흔적이 곳곳에서 역력히 나타난다. 때문에 『抗美援朝戰爭史(3卷本)』와 대조하면서 숙독하면 6·25전쟁에 관한 중·소 최고위층의 정책결정은 어떠한 배경과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③ 逢先知, 李捷 著, 『毛澤東與抗美援朝(마오쩌둥과 한국전쟁)』(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0年)

팡셴즈(逢先知)와 리제(李捷)가 저술한 『毛澤東與抗美援朝』은 소책자이

19) 네 가지 내용이 기록된 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著, 『抗美援朝戰爭史(第3卷)』(北京: 軍事科學出版社, 2000年), 83-93쪽; 둘째, 230-245쪽, 328-337쪽, 385-390쪽, 402-405쪽, 416-428쪽, 480-494쪽; 셋째, 306-316쪽; 넷째, 48-51쪽, 53-54쪽, 218-219쪽, 328-333쪽, 376-385쪽 참조.

나, 상당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팡셴즈와 리제는 중국공산당 중앙문헌 연구실에서 중국공산당의 당사(黨史)를 연구하는 관방 연구자들이다. 이들은 『毛澤東傳(마오쩌둥 전기)』를 집필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가운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이후 마오쩌둥의 행적을 담은 두 개의 장을 먼저 책으로 출판한 것이 바로 『毛澤東與抗美援朝』이다. 저자들은 1차 자료들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료를 포함하여 많은 양의 귀중한 6·25전쟁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다. 이 책은 중국 최고위층의 참전결정과정, 제1차에서 제5차까지 각 전역의 지휘 과정, 1951년 7월부터 시작된 정전협상 과정과 그 이후 전투에 대한 중국 고위지도부의 대응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참전결정과정에서 저자들은 1950년 10월 2일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내려는 전문을 기초(起草)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왜 그 전문을 발송하지 않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문제의 전문은 공개된 바 없었는데, 이 책에서 최초로 김일성을 비판한 부분을 제외하고 처음과 끝까지 10월 2일자 미발송 전문이 공개되었다.

저자들은 중국지도부가 제3차 전역 이후 신속하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낙관하였기 때문에, 제4차와 제5차 전역에서 실패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저자들은 마오쩌둥을 비롯한 지휘부가 한국전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구전 회피를 위한 준비, 전략적인 병력교대, 장병 사기 양양대책, 협상 정책, 공격 전략 등 한국전에서 중국지도부가 구사한 전략 조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정전협상이 시작되면서부터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하기까지 전쟁의 지속과 정전을 두고 중국과 소련 그리고 북한 사이에 있었던 견해 차이와 마지막으로 어떠한 조정 과정을 거쳐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6·25전쟁이 종결되었는지에 대해서 중국 최초로 서술하였다.

그러나 『毛澤東傳』의 일부분으로 쓰여 졌기 때문에 시각에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복잡한 국제관계와 전쟁의 구체적 진행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001년 저자들은 개정판에서 약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보충하고자 하였으나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않았다.

2) 민간학자 연구 저작

중국에서 6·25전쟁에 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민간인 학자들은 소수이나 연구 성과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국의 한국전 참전에 대해 반성하는 비판적인 분석들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에서 6·25전쟁에 대해 활발하게 연구하는 대표적인 민간인 학자는 선즈화(沈志華)와 북경대학교 역사학과의 양쿠이송(楊奎松), 북경대학교 국제정치학과의 뉴권(牛軍), 북경대학교 조선어과의 진징이(金景一)를 들 수 있다. 이밖에 6·25전쟁에 관해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이를 『遏制中國-朝鮮戰爭與中美關係(봉쇄 중국-한국전쟁과 중미관계)』로 출판한 린이민(林利民)이 있는데 그는 출판 후, 중국 국무원 안전부 산하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반관반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遏制中國-朝鮮戰爭與中美關係』가 린이민간인 신분이었을 때,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학자 연구 저작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 ① 沈志華, 『毛澤東, 斯大林與韓國戰爭(마오쩌둥과 스탈린 그리고 한국전쟁)』(香港: 天地圖書有限公司, 1998年)와 沈志華, 『中蘇同盟與朝鮮戰爭研究(중·소 동맹과 한국전쟁 연구)』(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9年)

선즈화는 중국의 관방 조직이나 대학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재야에서 중국의 6·25전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대표적 민간인 학자이다. 그는 베

이징 동방역사연구회(北京 東方歷史研究會)를 조직하여 민간인 학자는 물론 관방의 학자들과 폭넓게 교류하며 6·25전쟁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아직까지 중국공산당의 일당독재체제가 유지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그런데 선즈화는 어느 조직에도 속해 있지 않아 관방은 물론 다른 민간인 학자들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연구에 임하고 있으며 더욱이 러시아어에 능통하여 구소련 기밀문서와 중국이 공개한 기밀문서를 바탕으로 천편일률적인 기존 중국의 6·25전쟁 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중국의 6·25전쟁에 관한 연구의 지평을 선두에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개인 홈페이지²⁰⁾를 개설하여 6·25전쟁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연구 성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위의 두 저작물은 선즈화의 6·25전쟁에 관한 연구의 자매편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그의 6·25전쟁에 관한 저작이고, 후자는 중소동맹과 6·25전쟁에 관련된 논문집이다. 선즈화의 6·25전쟁에 대한 연구물을 천착하면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선은 중소관계 발전의 궤적 속에서 6·25전쟁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위의 두 책에서 선은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 스탈린의 동북아 지역에 대한 전략 구상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동맹조약과 소련의 원동(遠東)전략목표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²¹⁾ 이러한 선의 시각은 과거 중국학자들이 6·25전쟁에 대해 연구하면서 간과하였던 것으로 선이 새로운 각도에서 6·25전쟁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6·25전쟁에 대한 연구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둘째, 두 책의 특징은 러시아에서 공개한 1차 자료와 중국의 당안 자료를 주의 깊게 비교·분석하면서 연구를 진행시켰다는 점이다. 이 책이 출판되기 전 그의 연구물들은 주로 러시아 자료에

20) 선즈화의 개인 홈페이지는 <http://www.shenzhijhua.net>이다.

21) 沈志華, 『中蘇同盟與朝鮮戰爭研究』(桂林: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9年), 213-244쪽; 沈志華, 『毛澤東, 斯大林與韓國戰爭』(香港:天地圖書有限公司, 1998年), 18-58, 178-222쪽.

의존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두 책은 러시아 자료에 중국의 자료를 상세하게 교차 비교하면서 종합하여²²⁾ 연구를 진행시킴으로써 좀 더 객관적으로 접근하려 노력하였다. 물론 선의 두 저작에는 아직 더 논의해 보아야 할 몇 가지 부분이 존재하지만 중소관계와 연계하여 냉전의 틀 속에서 러시아의 1차 자료를 활용하여 6·25전쟁에 관한 연구를 중국적 상황에서 거시적으로 수행했다는 면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② 楊奎松, 『走向破裂—毛澤東與莫斯科的恩恩怨怨(분열의 길로—마오쩌둥과 모스크바의 은혜와 원한)』(江西人民出版社, 1999)

양쿠이송(楊奎松) 북경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러시아에서 공개한 기밀 문서를 중심으로 6·25전쟁에 관해 연구해온 중국의 대표적 민간인 소장학자이다. 그 또한 선즈화와 마찬가지로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6·25전쟁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시각을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²³⁾ 그는 1997년 靑石이라는 필명으로 학술지 『百年潮』 1-3호에 연속으로 「1950年臺灣解放計劃擱淺的幕後(1950년 대만해방계획 좌초의 막후)」, 「斯大林力主中國出兵援朝(북한 지원을 위한 중국의 출병에 대한 스탈린의 강력한 주장)」, 「朝鮮停戰內幕(한국전쟁 정전 내막)」을 발표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다. 『走向破裂—毛澤東與莫斯科的恩恩怨怨』은 그가 오랫동안 연구한 마오쩌둥과 소련과의 관계에 대한 학술적 성과물이다. 그는 이 책의 제11장 「中國出兵朝鮮幕後(중국의 한국전 출병 막후)」와 제12장 「遲到的合作(지연된 협력)」에서 6·25전쟁 기간 중국과 소련간에 이루어진 다양한 교섭과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장은 서술식으로 이루어져 참고한 1차 자료에 대한 주석을 달지 않고 있으며 장 말미에 서술의 근거가 된 자료의 출처원을 밝히고 설명하였다. 6·25전쟁에 관해 쓰여진 두 장의 특징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소련의 1차 자료를 종합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는

22) 沈志華, 『中蘇同盟與朝鮮戰爭研究』(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9年), 138-171쪽 참조.

23) 양쿠이송 개인 홈페이지는 <http://www.yangkuisong.net/zhuanwaihanzhanbaofa.htm> 이다.

중국의 출범 결정과 6·25전쟁에서 마오쩌둥과 소련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周恩來年譜(1949-76)』 편집자 진충지(金冲及) 교수는 이 책에 실린 추천의 글에서 저자가 일단의 역사에 대해 전체적인 흐름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문제에 대해 논증을 진행하여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며 장점이라고 평가하였다. 양쿠이쑹의 이 저작에 대해 중국내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특히나 중국의 6·25전쟁 참전은 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영웅적 투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전통적인 중국 관방 학자들은 이 책을 폄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방 학자들은 그가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깊은 고민 속에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물론 이는 당과 국가가 사상을 통제하고 있는 중국의 실정을 반영한 결과이다.

③ 林利民, 『遏制中國—朝鮮戰爭與中美關係(봉쇄 중국—한국전쟁과 중미 관계)』(北京:時事出版社, 2000年)

이 책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이라는 시각에서 6·25전쟁을 검토하고 있다. 저자는 6·25전쟁의 과정을 중미관계의 전개, 아·태 지역의 전략적 지형 변화 등과 결합하여 재구성함으로써 6·25전쟁 연구의 새로운 시각과 쟁점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중국에서의 6·25전쟁 연구가 중국의 전쟁 개입과 전쟁의 전개, 종결에 치우쳐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책은 전쟁의 실질적인 두 배후이며 정전협정의 서명당사자인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 하겠다. 더욱이 이 책은 6·25전쟁 시기 중국적 시각에서 당시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와 미국의 대만과 티베트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 자료를 동원하여 꼼꼼하게 해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연구의 동인을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6·25전쟁의 폭발과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음 세 가지로 학자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그의 분류를 인용하여 저작을 중심으로 소개하기로 하겠다.²⁴⁾ 첫째, 6·25전쟁

의 폭발이 미국의 대중봉쇄정책 결정의 요소가 되었다는 입장이다. 趙學功의 『朝鮮戰爭中的美國與中國(한국전쟁기 미국과 중국)』(太原:山西高校聯合出版社, 1995年); 華慶昭, 『從雅爾塔到板門店(알타에서 판문점까지)』(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2年) 등이 이 입장이다. 둘째, 미국은 6·25전쟁의 폭발과 관계없이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실행했다는 주장으로, 이런 입장의 저작은 時殷弘, 『敵對與衝突的由來(적대와 충돌의 유래)』(南京:南京大學出版社, 1995年); 資中筠, 『美國對華政策的緣起和發展(미국의 대중정책의 기원과 발전)』(重慶:重慶出版社, 1987年)²⁵⁾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위 두 입장의 중간으로 대중봉쇄정책을 검토하던 미국에게 6·25전쟁이 계기를 제공했다고 보는 입장으로 陶文釗, 『中美關係史(중미관계사)』(重慶:重慶出版社, 1993年)를 들 수 있다. 타오원자오(陶文釗)은 미국이 중국혁명을 반대하고 한국과 월남전에 개입하게 된 일련의 결정은 모두 중국 봉쇄정책의 산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캐나다와 6·25전쟁을 연결해서 쓴 李節傳, 『抑制美國-朝鮮戰爭中的加拿大(억제 미국-한국전쟁 시기 캐나다)』(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8年)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 ④ 金景一, 「抗美援朝戰爭探源-圍繞着國共內戰前後時期的中國與分裂時期的朝鮮半島關係(한국전쟁의 근본원인에 대한 탐구-국공내전 전후 시기 중국과 분열시기 한반도 관계)」(北京:北京大學校, 2001年)²⁶⁾

진징이(金景一)는 북경대학교 조선어과 교수로 조선족 동포 2세이다. 그는 중국의 6·25전쟁 연구에서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 있던 6·25전쟁 당

24) 林利民, 『遏制中國-朝鮮戰爭與中美關係』(北京:時事出版社, 2000年), 12-18쪽.

25) 최근 출판된 그의 책을 참조할 것. 資中筠, 『追根溯源-戰後美國對華政策的緣起與發展(1945-1950)[사건의 본질을 찾아서-전후 미국의 대중정책의 기원과 발전(1945-1950)]』(上海:上海人民出版社, 2000年).

26) 이 논문은 한국에서 번역 출판되었다. 김경일 지음, 홍면기 옮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한중관계의 역사적·지정학적 배경을 중심으로』(서울:논형, 2005).

시 대만과 관련된 사항과 중국에서 좌우 대립을 벌이며 항일독립운동을 벌였던 조선인들과 6·25전쟁과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抗美援朝戰爭探源－圍繞着國共內戰前後時期的中國與分裂時期的朝鮮半島關係」로 2001년 북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 책은 광범한 자료와 인터뷰 자료를 통하여 전후 국공 양당과 남북한 두 진영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6·25전쟁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장제스(蔣介石)가 남북한간의 긴장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6·25전쟁 당시 주한 중화민국(대만)대사였던 소위린(邵毓麟)이 1950년 3월 7일 장제스에게 남북한간의 충돌을 조장시켜 소극적인 미국의 정책을 변화시킬 것을 건의한 내용²⁷⁾등을 담고 있다. 진교수는 중국의 자료는 물론 대만 국사관(國史館)의 장제스문서(蔣中正檔案)까지 활용하여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한국인 독립 운동가들이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대립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패망하기 전에도 이데올로기에 따라 좌와 우로 나뉘어 적대적인 관계 속에 독립운동을 전개하며 갈등을 겪었던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저자는 1945년 일본이 패망한 이후, 6·25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이미 두 진영은 한반도에서의 국가건설의 모델과 방향을 두고 갈등이 첨예화되어 전쟁은 진행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저자는 6·25전쟁을 내재적 관점에서 분열된 독립운동 진영과 6·25전쟁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학술적 지평을 열었다 할 수 있다.

27) ‘…最高方針是否應設法秘密策動南北韓衝突，促使情勢緊張，改變美國政策，以至提前美蘇關係之整個變轉，在六月十日韓國總選舉前，是否應對李承晚及其反對黨秘密分別予以金錢補助，以便我方運用’，출처：特交檔案分類資料 第068卷.

4. 최근 중국의 6·25전쟁 관련 주제별 연구 성과

최근 중국학자들이 발표한 6·25전쟁에 관한 대표적 학술 논문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전 개시에 관한 논문

6·25전쟁의 발발 과정을 규명하는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주제로 이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최근 의미있는 연구 성과는 먼저 沈志華, 「朝鮮戰爭爆發的歷史真相—來自俄國解密檔案新材料(한국전쟁 발발의 역사적 진실—구소련 기밀 해제 문서를 중심으로)」를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구소련의 기밀 해제 문서를 중심으로 6·25전쟁 발발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논문은 1949년 3월부터 김일성이 한국의 통일계획을 가지고 스탈린을 설득하기 시작하여 스탈린이 찬동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하였다. 1949년 3월 초, 김일성은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을 만나 한국의 무력 통일계획을 밝혔으나, 스탈린의 지지를 받아내지 못하였다고 한다. 같은 해 5월, 김일성은 김일을 북경으로 파견하여 마오쩌둥에게 한국의 무력 통일계획을 설명하였으나, 마오쩌둥 또한 찬성하지 않았다. 9월 초 김일성은 소련에 옹진반도 해방계획을 제출하였으나, 9월 24일 소련공산당 중앙정치국에서 재차 부결되었다.

논문에 따르면 1950년 1월 30일 스탈린이 김일성을 만나기를 원하였고 아울러 김일성의 준비를 도와 줄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한다. 4월 초 스탈린은 김일성과의 회담에서 김일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1949년 6·25전쟁을 반대하였던 스탈린이 갑자

기 입장을 바꾸었는지 선즈화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선은 소련이 신중국 출범 후, 중국과의 협상에서 과거 국민당정부로부터 획득한 뤼순(旅順)항을 중국에 돌려주게 됨으로써 태평양으로 나가는 출로를 잃게 되어, 뤼순항의 대체 항을 한반도에서 얻고자 희망하였기 때문에 입장을 바꾸어 김일성의 계획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선즈화는 1950년 5월 14일 스탈린이 마오쩌둥에게 보낸 전문을 근거로 1950년 5월 김일성이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하여 마오쩌둥과 회동하였다고 주장한다. 선즈화는 이때 스탈린이 한국전에 대한 소련의 입장 변화를 중국지도부에게 처음으로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스탈린은 아울러 한국전은 중국과 북조선 동지들이 함께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는 최종 입장을 전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때문에 마오쩌둥이 김일성의 무력 통일계획에 찬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선즈화의 결론이다.

선즈화의 논문과 더불어 6·25전쟁 개시와 관련하여 최근 가치 있는 연구 성과는 楊奎松, 「中國出兵朝鮮始末(중국의 조선 출병 전모)」이다. 양쿠이송은 선즈화와는 다른 측면으로 분석하고 있다. 양은 1950년 1월 미국 트루만 대통령의 두 차례에 걸친 성명에 주목하였다. 그는 이 두 성명이 스탈린에게 신호를 주었다고 보았다. 즉 모스크바는 한반도 전체를 통제하려 하였던 일본과 동일하게 한반도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이 발표한 성명서를 미국은 한국인 내부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간섭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해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교수는 6·25전쟁의 발발은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한다.

양쿠이송 교수는 한국전 발동에 마오쩌둥이 수동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선즈화의 주장에 한걸음 더 나아가 압력을 받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양이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6·25전쟁이 종결되고 수년이 지나 후에 마오쩌둥이 갖은 주중 소련대사 그리고 미코얀과 흐루시초프와의 회담 내용이다. 마오쩌둥은 여러 차례 당시 자신의 입장을 동일하게 밝히고 있다. 마오쩌둥은 6·25전쟁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가지고 있지 않

은 상태에서 김일성이 달려와 스탈린이 이미 동의하였다고 알려줌으로써 비로소 6·25전쟁 계획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오는 울화가 치밀었지만 찬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마오쩌둥은 1949년 김일성의 요청으로 조선인으로 구성된 두 개의 사단을 북한으로 귀국시켰다. 여러 학자들은 이를 사전에 중국이 김일성의 무력 통일계획에 공모한 유력한 증거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선즈화는 조선인 사단의 귀국과 6·25전쟁의 발발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시간상으로 중국이 조선인 사단의 북한 귀국을 허가하였을 때는, 마오쩌둥이 김일성의 남침계획을 반대하였을 때일 뿐만 아니라, 스탈린도 김일성의 군사계획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군에 소속되어 있던 조선인 장병들의 귀국 문제를 중국지도부가 김일성의 남침계획에 참여하였다는 것과 연결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다. 양쿠이송 교수도 선즈화의 이러한 주장을 논문 처음에 소개하고 이에 동의하고 있다. 즉 중국학자들은 북한의 남침에 대한 중국의 '공모론'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중국의 한국전 출병 결정 과정에 관한 논문

중국의 출병 과정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중국학계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던 주제였다. 이 문제는 1950년 6월 25일 6·25전쟁이 발발하고 1950년 10월 19일 중국이 정식으로 출병을 할 때까지로 귀결된다.

중국의 출병 결정 과정에 관해 최근 중국학계에서 발표된 대표적 논문은 다음과 같다. 齊德學, 「志願軍入朝作戰是中共中央的自主決定(지원군의 입북 작전은 중국공산당 중앙의 자주적 결정이었다)」와 沈志華, 「中國被迫出兵朝鮮-決策過程及其原因(중국은 강요받아 한국전에 출병하였다-그 결정 과정

과 원인), 「中蘇同盟與中國出兵朝鮮的決策(중소동맹과 중국의 출병 결정)」과 李捷, 「從出兵決策到五次作戰(출병 결정부터 제5차 작전까지)」 그리고 楊奎松, 「中國出兵朝鮮始末(중국의 한국전 출병 전말)」, 牛軍, 「朝鮮戰爭中中美決策比較研究(한국전쟁 기간 중 중국과 미국의 정책결정 비교연구)」.

위의 논문에서 중국학자들은 공히 1950년 6월 25일 6·25전쟁이 발발하자 중국은 이 전쟁이 국제화되고 장기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시기 중국이 벌인 군사적 준비도 모두 방어적 성격이었으며, 중국은 6·25전쟁에 개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군에게 38도선을 넘지 말 것을 경고하였으나, 미군이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38도선을 넘으려 준비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중국정부는 김일성의 출병 요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미국이 38도선을 돌파하였기 때문에 ‘항미원조’의 출병을 결정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치더쉐는 「志願軍入朝作戰是中共中央的自主決定」이라는 논문에서 중국의 출병 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논술했다. 그는 구소련의 기밀 해제된 3건의 전문을 통해 이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그가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문은 1950년 10월 1일 스탈린이 마오쩌둥에게 보낸 전문과 10월 3일 로신이 마오쩌둥으로부터 받은 출병에 관한 의견을 스탈린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낸 전문 그리고 10월 5일 스탈린이 마오쩌둥에게 보낸 전문이다. 이 세 전보의 내용을 검토하면 당시 마오쩌둥은 중국이 출병하여 작전을 벌이는 데에 대한 스탈린의 명확한 태도와 승낙을 요구하였다는 것이 치더쉐의 주장이다. 또한 마오쩌둥은 이 문제를 두고 스탈린이 저우언라이(周恩來)와 린바오(林彪)를 만나 논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탈린은 저우언라이와 린바오와의 회담에서 중국의 출병에 대해 동요하였으나 마오쩌둥의 태도는 분명하였다는 것이 치더쉐의 주장이다.²⁸⁾

리제는 「從出兵決策到五次作戰」에서 출병 결정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고

28) 齊德學, 「志願軍入朝作戰是中共中央的自主決定」, 『軍事歷史』2000年 第4期, 16쪽.

찰하고 있다. 제1단계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고 8월 상순까지의 기간으로 동북변방군을 조직하였으나, 중국은 준비로 끝내고 이 병력을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제2단계는 1950년 8월 상순부터 9월 15일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기 이전까지로 6·25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중국은 김일성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희망하였으며 동시에 확실한 승리를 위한 준비를 하였던 시기이다. 제3단계는 1950년 9월 15일부터 10월 7일 미군이 38도선을 넘기 이전까지로 북한인민군이 38선 이북을 확보해줄기를 희망함과 동시에 미군이 38선 이북으로 전쟁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보인 시기이다. 이때 중국은 한국 전황의 변화와 김일성의 요청으로 ‘항미원조 보가위국’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제4단계는 1950년 10월 8일 참전 명령 발표부터 10월 18일 참전 작전 시간을 마지막으로 확정된 시기이다. 이때 중국은 적극적으로 참전 작전 준비를 전개하는 한편 스탈린에게 무기와 장비의 지원 및 공중엄호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이 마지막에 입장을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출병의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다.²⁹⁾

선즈화는 「中國被迫出兵朝鮮－決策過程及其原因」의 논문에서 1950년 10월 2일부터 마오쩌둥이 4차례 출병을 결심하는 정황을 기술하고 있다. 첫 번째, 10월 2일 중앙서기처 회의 직전에 스탈린에게 출병을 보고하는 전문을 기초하였고, 더불어 가오강(高崗)을 베이징으로 불러 회의를 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덩화(鄧華)에게 “출동 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두 번째,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이어진 중앙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최후 출병을 결정하였고 10월 8일 마오쩌둥은 명령을 하달하였으며, 동시에 김일성에게 출병결정을 통지하였다는 것이다. 세 번째, 10월 12일 마오쩌둥은 스탈린이 공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통보받고 동북변방군에게 9일의 명령 집행을 유보하였으나, 13일 다시 개최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그래도 출동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네 번째, 10월 18일 마오쩌

29) 李捷, 「從出兵決策到五次作戰」, 『黨史研究資料』 2001年 第2期, 1-5쪽.

등은 중앙회의에서 저우언라이와 펑더화이의 보고를 받고 한국전 출병을 최종 결정하였다는 것이다.³⁰⁾

북경대학 국제정치학과 뉴권(牛軍) 교수는 「朝鮮戰爭中中美決策比較研究」에서 6·25전쟁 발발 후, 미국과 중국 쌍방의 각 단계별 정책결정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뉴권은 ‘국지전쟁(局部戰爭)’ 개념과 그 전략지도사상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3부분으로 나누어 양국의 정책 결정을 비교하고 있다. 첫째, 미국의 군사적 개입의 결정과 중국의 출병 결정과정을 비교하였다. 그는 이 양자의 결정은 상호 인과관계가 있으며 쌍방은 결정을 내리면서 6·25전쟁을 한반도내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정 중간에 상호 역량을 비교하면서 소련은 중국의 동맹국으로서 중국의 결정에 영향을 끼친 반면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38선 돌파와 중국의 38선 돌파를 비교하였다. 그는 미국의 38선 돌파 결정은 미국의 간섭 초기전략 목표의 근본적인 수정에 따른 결과라고 보았으며, 중국군의 38선 돌파는 돌발적인 것으로 곧 마오쩌둥이 전략목표를 수정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상호 인과관계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제한전에서 단계별 승리는 전략 목표의 확대를 쉽게 초래하여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았다. 셋째, 쌍방의 정전협상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였다. 그는 전장 상황의 측면에서 완고한 군사적 대치 국면이 정전협상을 이끌어낸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쌍방의 전략지도의 측면에서 ‘전쟁의 국지화’가 추구되었다는 것이다.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는 냉전의 큰 틀 속에서 쌍방은 전략지도사상을 조정하면서 최후 이 전쟁을 국지적인 범위로 제한하자고 결론내렸다는 것이다. 뉴권 교수는 마지막으로 중국과 미국은 전략을 지도하면서 전쟁을 통해 상호 실력을 겨루어 보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정전협상’을 통해 쌍방은 논리의 합치를 이루었다고 주장하였다.³¹⁾

30) 沈志華, 「中國被迫出兵朝鮮-決策過程及其原因」, 『中蘇同盟與朝鮮戰爭研究』(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9年), 121-130쪽.

(3) 1950년 10월 2일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을 둘러싼 연구

많은 학자들은 1950년 10월 2일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전문을 보냈는가와 중국에서 공개한 마오쩌둥이 손으로 작성한 전문의 진위를 두고 논쟁을 거듭하였다. 먼저 이 논란의 경과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6·25전쟁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다가 1981년 북경의 군사과학출판사에서 간행된 『毛澤東軍事文選』의 345-347쪽에 「중국인민지원군 파병, 입조 작전결정에 관해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을 실고 1950년 10월 2일자라고 기재하였다. 이 문서는 중국공산당 중앙문헌연구실에서 편집 간행한 『建國以來毛澤東文稿—第1卷』, 539-541쪽에도 수록되었다. 그런데 1999년 역시 중국공산당 중앙문헌연구실에서 편집한 『毛澤東文集—第6卷』의 97-99쪽에는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이라는 표현이 삭제되어 실렸다. 그러다 逢先知, 李捷이 쓴 『毛澤東與抗美援朝』, 137-139쪽에 원문이 실리면서 각주에 마오쩌둥이 작성하였으나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은 아니라고 명기하였다. 이러한 사정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서방학계에서는 중국이 6·25전쟁에 관한 문서 가운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선별 공개하고 있으며 일부는 수정 첨가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더욱 이 전문이 문제가 된 것은 같은 날짜에 러시아에서 공개한 구소련의 전문과 그 내용이 상이하다는데 있었다. 중국이 공개한 전문의 주요 내용은 마오쩌둥이 12개 사단으로 구성된 의용군을 10월 15일 한국전에 투입하기로 중국공산당이 결정하였다는 통보였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공개한 구소련 기밀문서 가운데 같은 날짜의 전혀 다른 내용의 전문이 있었다. 그 전문은 마오쩌둥이 주중 소련대사 로신을 경유하여 1950년 10월 2일 스탈

31) 牛軍, 「朝鮮戰爭中中美決策比較研究」, 『當代中國史研究』 2000年 第6期, 36-54쪽; 「한국전쟁에서 중·미 양국 결정에 대한 비교연구」, 박두복 편, 『한국전쟁과 중국』(서울:백산서당, 2001), 386-425쪽.

린에게 보낸 전문으로 중국이 파병하면 미국과 중국간의 직접 충돌이 야기 될 것이므로 지금은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 차후의 전투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담고 있었다.³²⁾ 이렇게 전혀 상반된 전문으로 인하여 중국 자료의 신뢰성을 두고 6·25전쟁 관련 학계는 뜨거운 논쟁을 벌이게 된 것이다.

중국학계는 기본적으로 손으로 작성된 마오쩌둥의 전문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단지 이는 작성되었으나 소련으로 발송되지는 않았으며 로신을 통한 전문이 발송되었다는 데에 대체적으로 의견의 통일을 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는지 최근 중국 학계는 이를 규명하는데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선즈화는 「中蘇同盟與中國出兵朝鮮的決策」에서 이 두 전문의 내용이 다른 배경과 이유에 대해 두 전문을 내밀하게 비교하고 이 전문을 작성한 시점을 전후한 마오쩌둥의 언행을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선즈화는 네 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 마오쩌둥이 두 번째 전보에서 중국이 출병을 잠시 보류하겠다고 한 이유는 마오쩌둥은 출전하면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출병을 결심하였기 때문에 승리할 조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지 출병 자체를 변경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목표 달성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위해 스탈린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마오쩌둥이 작성한 두 개의 전문이 내용을 달리한다고 하여도 이는 출병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출병을 잠시 보류하겠다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두 전문이 상치되는 주장을 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즉 출병을 행동으로 옮기는 전제조건을 마오쩌둥은 미군이 38도선을 돌파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출병을 미루는

32) 「마오쩌둥이 로신을 통해 필리포프 동지에게 보낸 회신」, 1950년 10월 2일, 『한국전쟁 (1950. 6. 25) 관련 러시아 문서: 기본 문헌, 1949-53』(서울:대한민국 외무부, n.d.), 101쪽; 「한국전 문서 요약」, 1950년 10월 3일, 『한국전쟁 관련 소련 극비 외교 문서 (1949. 1-1953. 8)』(서울:대한민국 외무부, 19994), 55쪽.

두 번째 전문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작전을 벌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 마오쩌둥은 이 시기 스탈린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중국지도부의 통일된 의견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우리는 1차 중앙회의를 거행해야 한다. 이 회의에는 중앙 각 부문의 주요 동지들이 모두 출석해야 한다. 이곳에서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다”라고 언급하였다. 넷째,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답변을 연기한 것은 중요한 문제가 미해결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출병하기 위해 소련의 지지와 지원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스탈린의 구체적인 답변을 얻고자 하였다. 그래서 10월 5일 정치국에서 출병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마오쩌둥은 스탈린에게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저우언라이와 린바오를 파견하여 스탈린과 직접 공중엄호 등 소련의 지원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였다.³³⁾ 선즈화는 이러한 배경때문에 내용이 다른 두 전문이 나오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팡셴즈와 리제는 「漫長的 18天(길고 긴 18일)」이라는 글에서 유사한 분석을 하고 있다. 팡과 리는 “당시 정황으로 판단하건데 마오쩌둥의 먼저 전문은 10월 2일 오후 서기처 회의가 개최되기 직전에 기초된 것으로 보이며, 서기처 회의에서 출병이 결정되면 스탈린에게 발송하려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다수가 출병에 찬성하지 않아 마오쩌둥은 이 전문을 유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다수의 의견을 종합하여 주중 소련 대사 로신으로 하여금 스탈린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추정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팡과 리는 전문의 내용 가운데 “이 문제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언급한 부분이 바로 로신이 마오쩌둥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³⁴⁾

팡셴즈와 리제는 마오쩌둥이 10월 2일 스탈린에게 보내려고 하였던 전문

33) 沈志華, 「中蘇同盟與中國出兵朝鮮的決策」, 『中蘇同盟與朝鮮戰爭研究』(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9年), 151-159쪽.

34) 逢先知, 李捷, 「漫長的 18天」, 『大地』2000年 第19期, 7쪽.

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그 전문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 공개된 데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고 逢先知·李捷 著, 『毛澤東與抗美援朝』에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첫 쪽과 끝 쪽을 포함하여 전문을 공개하였다. 이 때 공개된 전문은 첫 쪽과 끝 쪽에 김일성에게 보내는 중국측의 권고와 전략과 전쟁지도에 있어 중대한 착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었다.³⁵⁾ 결과적으로 중국은 북한과의 외교 문제를 고려하여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일부만 공개함으로써 오해를 낳았고 논란이 증폭되었으며 최종 모두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이다. 따라서 10월 2일 상충된 전문의 존재는 마오쩌둥이 출병을 결정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였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하겠다.

(4) 저우언라이와 린바오의 소련 방문에 관한 연구

중국의 6·25전쟁 연구자들은 최근 1950년 10월 저우언라이의 소련 방문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저우언라이의 소련 방문은 두 가지 문제로 귀결된다. 첫째, 저우언라이는 스탈린에게 어떠한 보고를 하였으며 무슨 의견을 구했는가? 둘째, 스탈린과 저우언라이는 회담에서 어떠한 내용을 토의하였는가?

첫째, 의문에 대해서 중국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저우언라이는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갔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는 스탈린이 중국군에 대한 공중지원을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출병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출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탈린에게 선택하라고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스탈린과 저우언라이 사이에 어떠한 내용이 토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가 있다.

송화위안(熊華源) 교수는 「抗美援朝戰爭前夕周恩來秘密訪蘇(‘항미원조 전

35) 逢先知, 李捷 著, 『毛澤東與抗美援朝』(中央文獻出版社, 2000年), 12-13쪽.

쟁'전 주은래의 비밀 방소)에서 당안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소련 대사를 역임하였던 스저(師哲)의 회고록에 나온 내용을 재구성하고 있다. 스저는 저우언라이가 출병, 불출병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스탈린과 회담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출병이 결정된 마당에 저우언라이가 두 개의 의견을 가지고 스탈린과 회담한 이유는 출병하기 전에 스탈린의 태도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중공 중앙은 중국군 출병의 전제조건으로 소련 공군의 엄호를 내세웠는데 이에 대한 스탈린의 분명한 답변을 듣기를 희망하였고 따라서 저우언라이가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스탈린을 만났다는 것이 숭의 주장이다.³⁶⁾ 송화위안 교수는 『周恩來年譜』 부(副) 편집자로 저우언라이 연구의 권위자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한 그의 연구는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선즈화도 「中蘇同盟與中國出兵朝鮮的決策」에서 저우언라이의 소련 방문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는 저우언라이와 스탈린은 먼저 중국 출병의 어려움에 대해서 논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리고 흑해(黑海)회담에서 최초 중국의 불출병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저우언라이가 출병과 불출병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스탈린을 만났음이 증명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면 당시 중국은 이미 출병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우언라이가 왜 출병할 수 없다는 안을 꺼냈느냐에 모아진다. 선즈화는 이는 일종의 협상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출병작전의 관건은 소련이 공군을 동원하여 중국군의 한국내 작전을 엄호하느냐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소련으로부터 더 많은 무기와 장비 그리고 확실한 공중 지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불출병 카드를 내놓았다는 것이 선즈화의 주장이다.³⁷⁾

양쿠이송 교수도 「中國出兵朝鮮始末」에서 선즈화의 논리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는 마오쩌둥은 스탈린이 소련 공군을 동원하여 중국군을

36) 熊華源, 「抗美援朝戰爭前夕周恩來秘密訪蘇」, 『黨的文獻』1994年 第3期, 85, 86-87쪽 참조.

37) 沈志華, 「中蘇同盟與中國出兵朝鮮的決策」, 『中蘇同盟與朝鮮戰爭研究』(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9年), 161쪽.

엄호할 수 없다는 입장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렇지만 마오쩌둥은 김일성이 동북으로 쫓겨와 망명정부를 세울 경우 미군과 직접 충돌할 상황을 우려하였고 때문에 출병만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정치국 위원들을 설득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1950년 8~9월간 미군의 오폭으로 입은 동북지역의 피해도 마오가 정치국 위원들을 설득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양쿠이쑹 교수의 주장이다.³⁸⁾

(5) 6·25전쟁 종결을 둘러싼 중국과 소련 그리고 북한의 갈등에 관한 논문

최근 중국의 6·25전쟁 연구는 정전협상 부분에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점은 정전협상을 둘러싼 중국과 소련 그리고 북한의 갈등에 모아지고 있다.

선즈화는 「1953年朝鮮停戰－中蘇領導人的政治考慮(1953년 한국전 정전－중소 수뇌의 정치적 고려)」에서 한국전의 정전을 둘러싸고 중·소간에 있었던 갈등을 구소련 기밀문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1952년 판문점에서 협상이 시작된 이후, 김일성은 정전협정이 조기에 타결되기를 희망하여 중국이 포로 문제를 양보할 것을 건의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20일과 9월 19일 스탈린은 저우언라이와 회담하면서 포로의 전부 귀환을 요구하는 중국의 의견에 지지 의사를 보냈다. 10월 8일 미국이 정전협상의 무기한 연기를 선언하자 소련은 유엔에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외교적 노력을 펼쳐 나갔다. 이러한 일단의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선즈화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스탈린은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는 세계 전략에서 출발하여 마오쩌둥의 전쟁 지속 전략을 지지하였다는 것이다. 따라

38) 楊奎松, 「中國出兵朝鮮始末」, 『중국의 한국전 출병 시말』; 박두복 편, 『한국전쟁과 중국』, (서울: 백산서당, 2001), 283-328쪽.

서 정전협상에서 양보를 반대하였고 이러한 소련의 입장은 스탈린이 사망하기까지 지속되어 이때까지 중·소간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일치하였다고 주장한다.

선즈화는 1953년 한국전쟁에서 중국군의 군사력이 개전 이후 가장 양호하였다고 보았다. 물론 이는 병력과 장비, 훈련, 운송, 탄약 및 식량 비축 등을 모두 고려하여 내린 결론이다. 따라서 마오쩌둥은 전쟁과 협상 두 가지 수를 모두 가지고 전투를 벌임으로써 상대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전술을 구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에 스탈린이 사망하였고 소련의 신지도부가 한국전의 조기 종결로 입장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모스크바의 방침 변경과 이어 중국의 동의로 교착된 정전협상은 새로운 진전을 보였다는 것이 선즈화 논문의 내용이다.

선즈화는 진충지(金冲及)가 편찬한 『周恩來年譜(1949-76)』와 팡셴즈와 리제의 『毛澤東與抗美援朝』에서 공개한 중국 자료와 그가 수집한 구소련 자료를 중심으로 스탈린 장례식에 참석한 저우언라이와 소련 신지도부간의 이루어진 한국전에 관한 협의 내용을 추적하였다. 선즈화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과 소련간의 정책 협조는 빠르게 이루어져 정전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1953년 3월 23일 마오쩌둥은 덩궈위(丁國鈺)에게 클라크가 제의한 회담 재개에 응할 준비를 하라는 전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협상이 이어졌다. 선즈화는 마오쩌둥은 정전의 전체 방침에 대해서는 모스크바의 의견을 존중하였으나 협상에서의 구체적 양보나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중국이 완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소련이 마오쩌둥의 결정에 의존하였다고 결론내리고 있다.³⁹⁾ 선즈화는 1953년 중국과 소련의 협의는 소련이 제기하고 중국이 접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보고 있다. 팡셴즈와 리제도 『毛澤東與抗美援朝』에서 이에 동의하며 자세한 협의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39) 沈志華, 「1953年朝鮮停戰-中蘇領導人的政治考慮」, 『世界史』 2001年 第2期, 2-18쪽.

2000년 10월 단둥(丹東)에서 개최된 한국전쟁에 관한 한중학술회의에서 송화위안은 「關於1953年朝鮮停戰談判恢復的情況(1953년 한국전 정전협상 회복을 둘러싼 정황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송교수는 「中國代表團赴蘇任務提綱(중국대표단의 소련 방문 임무 요강)」과 「周恩來同蘇共領導人會談記錄(저우언라이와 소련 공산당 지도자와의 회담 기록)」이라는 자료를 근거로 1953년 3월 저우언라이가 소련에서 회담한 내용과 결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북경으로 돌아와 중국의 입장이 전환되는 과정을 저우언라이의 입장에서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⁴⁰⁾

(6)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비교 연구

6·25전쟁 연구에 대한 중국학계의 최근 하나의 특징은 냉전의 산물로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을 인식하고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6·25전쟁 연구의 대표적 학자인 선즈화의 부인인 리단후이(李丹慧) 연구원은 「三八線與十七度線—朝戰和越戰期間中中美信息溝通比較研究(38선과 17도선—한국전쟁과 월남전 기간 중, 중국과 미국의 정보소통 비교 연구)」를 『中共黨史研究』 2001年 第3期에 발표하여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을 비교연구 분야로 중국의 6·25전쟁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고 있다. 이 논문은 박두복 교수가 편한 『한국전쟁과 중국』에 번역되어 국내에도 소개되었다.⁴¹⁾ 리 연구원은 중국과 미국은 6·25전쟁 당시 38선이 가지고 있는 정치·군사적 의의에 대한 정확한 상호 의사소통에 실패함으로써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베트남전에서는 한국전의 경험에 따라 미국은 17도선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중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할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고, 중국

40) 熊華源, 「關於1953年朝鮮停戰談判恢復的情況」.

41) 李丹慧, 「38선과 17도선: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중·미 정보소통비교연구」; 박두복 편, 『한국전쟁과 중국』(서울: 백산서당, 2001), 427-449쪽 참조.

또한 월맹군에 대한 고사포부대와 군수지원부대에 대한 지원을 하였지만 지원 범위를 남베트남의 베트남이 아닌 17도선 이북의 월맹으로 확실히 제한함으로써 상호간의 직접 충돌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정은 17도선과 38도선의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 갈등과 위기 상황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는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6·25 전쟁을 월남전쟁과 비교론적 시각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 6·25전쟁에 관한 중국 학계의 최근 연구 성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6·25전쟁은 냉전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그 연구범위의 확대와 다양한 관점의 등장도 곧 냉전극복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는 바로미터이다. 때문에 아직까지도 중국은 민감함 부분의 관련 자료들을 완전히 공개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직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냉전의 잔재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학술적으로 연구를 제약하는 요소이나 역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냉전의 유산의 크기를 말해주는 것이며 연구자들이 개척해야 할 과제이다.

5. 결 론

중국의 6·25전쟁에 관한 연구의 최근 동향에 대해 주제별로 검토해 보았다. 중국의 6·25전쟁 연구는 중국정부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6·25전쟁 관련된 당안을 공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구소련 기밀문서의 공개와 냉전 종식이 맞물리면서 기존 체제 경쟁적 연구 성과가 대중을 이루던 데서 역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쪽으로 진전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국에서의 6·25전쟁 연구는 전반적으로 냉전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중요한 원인은 한반도에서 아직도 냉전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데 있다. 여기에 중국의 비민주적인 정치체제와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한 몫하고 있으며 6·25전쟁 발발에 대한 중국의 책임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중국학계의 6·25전쟁에 대한 연구는 시기별로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그 시각에 있어서는 중국의 입장이 정당하였다는 고정된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광저우(廣州) 사회과학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쉬저룽(徐澤榮)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중국의 출병이 중국의 국가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중국지도부는 미국이 중국본토를 침략할 움직임에 대해 걱정하지도 않았다고 기존 중국정부는 물론 중국의 6·25전쟁 학계의 일관된 주장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나아가 중소동맹의 존재와 중국의 해군력 부족으로 당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개연성도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중국참전의 정당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금기시 되어온 상황 속에서 6·25전쟁에 대한 과거의 관점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의견들이 점차 더 그 강도를 높이며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1999년 말 광저우에서 발간된 잡지 『隨筆』 第6期에 학술논문이 아니지만 시론 형태로 「真相(진상)」이라는 글이 게재되었다. 인민일보 기자로 알려진 필자 위안시(袁晞)는 중국의 참전 결정을 비난하였다.⁴²⁾ 위안시는 중국이 6·25전쟁에 참전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의 손실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발전의 지체, 대만 해방의 기회 상실, 장기간에 걸친 대미 적대관계의 형성과 유엔 가입의 봉쇄, 일본부흥의 기회 제공 등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반(反)관변적인 주장에 대해 즉각적인 반박의 글이 게재되었다.

중국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명자오후이(孟照輝) 연구원은 『軍事歷史』 잡지에 「誰在掩盖抗美援朝戰爭的真相—簡評‘真相’一文(누가 항미원조의 진상을 은폐하는가—‘진상’에 대한 간단한 평가)」라는 글을 발표하여 강력히 위

42)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art.../A29527-2000Oct27.htm> 참조

안시의 ‘진상’을 비판하였다. 이어 치더쉐도 역시 『當代中國史研究』 2000년 第4期에 「‘真相’是真相嗎?(‘진상’은 진상인가?)」라는 글과 『中國軍事科學』 2000년 第4期에 「‘真相’一文所講的是真相嗎?(‘진상’에서 말하는 것이 진상인가?)」라는 글을 통해 강력히 반발하였다.

명자오후이와 치더쉐의 논리를 살펴보면 첫째, 1950년 6월 25일 발생한 6·25전쟁과 1950년 10월 25일 중국이 참전한 ‘항미원조’전쟁은 명확히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6·25전쟁은 미·소간의 냉전 전략과 한반도의 남북한이 상호 무력 통일정책을 내세워 발생하였지만 ‘항미원조’전쟁은 미국이 제7함대를 대만해협에 파견하고 미군이 중국 국경까지 진격하여 중국 동북지역에 폭격을 실시하여 중국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참전하였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즉 최근 중국 관방의 논리는 6·25전쟁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 자신들이 관계된 소위 ‘항미원조’전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00년 ‘항미원조’ 50주년을 기념하면서 ‘항미원조’전쟁은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해 중국을 보위하고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친 정의의 전쟁’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인민일보의 인터넷 토론방인 ‘강국논단(強國論壇)’에는 이러한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설명에 반하는, 중국의 6·25전쟁 참전에 대한 공과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중국인들의 목소리가 높았다.⁴³⁾ 6·25전쟁 참전 50주년을 계기로 중국정부가 중국인들의 애국주의를 고취시키기 위해 벌인 캠페인 속에 터져 나온 이러한 일반 백성의 목소리는 중국의 참전에 대한 또 다른 평가의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 발간된 6·25전쟁에 관한 연구 성과를 점검함과 동시에 간략하나마 최근 중국의 시각의 변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물론 중국의 6·25전쟁에 대한 이제까지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연구 성과를 뛰어넘는 반관변적인 논의가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학문적 토론의 장에 올려지기까지는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이는 중국의 정치적인

43) 동아일보 2000. 10. 19. 참조.

상황과 중국과 북한의 관계 변화에 밀접히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 참전의 동기와 참전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관점이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원고투고일 : 2005. 4. 29, 심사완료일 : 2005. 6. 4)

주제어 : 중국의 6·25전쟁 연구, 6·25전쟁, 항미원조전쟁, 당안, 시각변화

K C I

<ABSTRACT>

Research on the Korean War - The Results and the Present Status in China

Oh, Gyu-yeol

The Korean War is a historical event in which all of North-east Asian nations were directly or indirectly intervened. Therefore it is the first step to the relaxation of international tensions and a peace settlement to developmentally solve tensions and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was caused by the Korean War. For this, the need for new understanding about the war is brought up. Disruption of the Soviet Union has brought a big change on studying the Korean War. First, scholars became to be free to see the war from a cold war viewpoint. Second, opening a large amount of secret documents and archives to the public, that has been kept in Russia, makes us to be easy to approach the reality of history.

Studying the Korean War in China was not able to be free from the effect of these changes. So the Chinese government began to open the official documents about the Korean War to the public and vigorous research on the war was started to develop in China. Nevertheless the research on the Korean War is not beyond a cold war. The important cause is the rel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responsibility of China fo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t will take long to provoke openly anti-authoritative devate about Chinese entry into the Korean War and for the devate to be an issue in the groves of Academe. This will be also

impacted by the political situation in China and changes of relation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But we can not deny a possibility of this point of view rising to the surface when various aspects of evaluations of the motive of Chinese entry into the Korean War and entry itself are making.

Key Words : Research on the Korean War in China, the Korean War, War of anti-American aid-North Korea, Archive, Change of viewpoint

K C I